

[속보]48시간비상국민행동 "될때까지 모여라"

노동과 세계 | 승인 2008.06.20 19:06

광우병쇠고기반대범국민대책회의 20일부터 48시간 비상국민행동선포, 뉴라이트회원 수백여명 서울 여의도 MBC, KBS에서 난동

[사진3]

[2신/20:30] 48시간비상행동 참가 시민들 "촛불시위 방해자는 나라 역적이고 국민 역적이다" 네티즌, 시민들 2만여 명 서울광장 운집,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참여 줄이어

저녁 8시30분 현재, 서울광장에는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참가하려는 네티즌과 시민들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7시30분경 본대회에 돌입한 이후 시민 자유발언과 이명박 퇴진을 상징하는 각종 무대공연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 부평구 공부방 늘봄마을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이제 방학이다 이명박은 각오하라"는 뜻을 담은 단체공연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어린이들은 "우리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정말 싫어 이 자리에 올라왔다"며 참가자들 호응에 따라 앵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집회하고 뺑뺑이식 촛불행진만 할 것이냐"며 "이제 한발짝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돌격앞으로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우리 의지를 이명박 정권에게 보여주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 대학생도 무대에 올라 "한 달 반 이상 든 거대한 촛불을 외면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주변 사람만 바꾼다고 국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학교자율화, 물사유화, 한미FTA 등을 놔두고는 살 수 없어 촛불을 들었고, 서로 힘이 되면서 버텼으며 힘든 우리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밖에 없다"며 "더 큰 촛불로 48시간을 지키며 더 큰 광화문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시민의 힘으로 우리 삶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마솥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할아버지는 "제가 맛 좋고 질 좋은 고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했더니 한 인터넷언론이 저에게 '가마솥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전하고 "재협상하라고 하니 30개월 미만짜리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전한가? 만에 하나 광우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명박은 여기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2]

또 촛불집회를 휘방놓고 있는 이들을 향해 "진정한 신자들이라면 뉴라이트처럼 촛불에 반대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촛불시위 방해자는 나라 역적이고 국민 역적"이라며 더 이상 국민 촛불을 막지 말 것을 경고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땅 끝 마을 해남에서 올라온 문익환 목사 후배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들은 "매주 목요일 해남지역민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해남 국민광장에 천막을 치고 해남지역 54개 종교인들이 모여 촛불기도회를 했다"고 전하고 "한달 넘게 지속된 촛불문화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했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지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해남 땅 끝 마을에서 끝까지 촛불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도 끝까지 촛불을 켜 달라"며 "우리가 승리하고 촛불이 승리해 재협상을 쟁취하자"고 다짐했다.

영화 '마라톤' 정윤철 감독은 "한 대학교 마라톤대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자격으로 온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소탈해 보였고 대학생들에게 직접 사인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좋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사인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사인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퀵터는 축소되거나 없어져도 어느나라 영화인지 알 수 있지만 쇠고기를 그렇지 않은데 국민 먹거리 문제를 대충 처리하려는 이 정권과 정치인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일단 뚫리면 끝이고 좌파든 우파든 조선일보든 한나라당이든 피해갈 수 없으며 믿을 건 오로지 나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뿐”이라며 정 감독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 하지만 미래는 아냐,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면”이라는 최근 만든 영화 ‘수퍼맨이었던 사나이’ 대화내용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촛불은 누가 키도록 했나? 끝까지 자신을 믿고 옆 사람을 믿고 힘을 내자”고 촛불시민들 힘을 북돋웠다.

저녁 8시 50분, 2만여 촛불시민들이 촛불행진에 돌입했다.

[사진4]

[1신/19:05] 서울광장 평온, 국민대책회의 20일 저녁7시 48시간비상국민행동 선포 서울 여의도 MBC, KBS 쪽에서 뉴라이트 수백여명 난동 중

"촛불아, 될 때까지 모여라!"

광우병최고기반대국민대책회의가 20일부터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선포하고 네티즌, 시민들이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20일 오후 6시50분 서울광장, 어제 밤 10시부터 이날 새벽3시까지 국민대토론회가 이곳에서 열렸고, 이명박정권 퇴진 여부와 직접 행동 방식, 한미쇠고기협상 재협상 여부 등을 놓고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식지 않은 열기는 이날 내내 서울광장 현장을 감싼 채 다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으로 이어질 기세다.

[사진1]

이 시각 현재 서울광장 현장은 평온하다. ‘촛불이 승리한다, 될 때까지 모이자, 48시간 비상국민행동’ 펼침막이 걸렸고, 광장 안으로 네티즌, 시민들이 집결 중이다. 광장 반 이상이 인파로 가득차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서울 여의도 MBC와 KBS 쪽에 ‘이명박정권 친위대’ 뉴라이트 회원 1백여 명이 모여 ‘난동’에 가까운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후 내내 MBC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이들은 이 시각 KBS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현장에는 촛불시민 1백여 명이 공영방송 사수 등을 외치며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